

은행권 2%대 신용대출 사라졌다...

빚투 젊은층과 가계·자영업자 이자 부담 늘어날 듯 올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 진정 여부에 관심

급증하는 가계 부채 증가속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금리도 인상하면서 은행권의 2%대 신용대출 금리가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다 최근 1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한국은행이 10월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빚투(빚을 내 투자)로 주식 등에 투자한 청년층에서부터 서민가계, 코로나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등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급증하는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제주도 지역 단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용 84㎡ 기준 많게는 2억원 이상 폭등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02%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뛰었다. 5월 0.82%에서 6월(0.92%), 7월(0.95%), 8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1%대로 오른 것은 2020년 6월(1.06%) 이후 15개월만인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8월 하순에 올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에는 코픽스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의 8월 취급 평균 금리는 NH농협은행 3.04%, 신한은행 3.08%, 제주은행 3.13%, 하나은행 3.15%, KB국민은행 2.76% 등이 다. 6월 중 취급된 주택담보 평균 대출

금리가 2.56~2.96%로 모두 2%였던 데서 상승세가 확인된다. 또 8월 취급된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3.07%, 신한은행 3.44%, 제주은행 3.15%, 우리은행 3.22%, 하나은행 3.62%, KB국민은행 3.41%로 모두 3%가 넘었다. 1년 전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28~2.75%였다.

6월 말 기준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7조297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2%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13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적금담보대출 잔액은 12조1637억원으로 7.8% 증가했다. 2020년 6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0.4%, 기타가계대출이 3.8%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들어 증가폭이 더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 초반 코스피가 폭락 후 반등하면서 재미를 봤다는 이들이 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는 젊은층이 늘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이들이 적잖았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에 8월 24일부터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자 타행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 줄이기에 나서는 은행이 늘면서 신용대출로 관심을 돌리는 이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마늘 파종하는 농촌 26일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마늘 파종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노지채소류 품목별 재배면적 증감 뚜렷 일손 많이 드는 마늘·양파 ↓- 무 ↑

제주에서 생산되는 노지채소류의 재배면적이 품목별로 뚜렷한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계화가 안돼 파종에서 수확까지 과정을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마늘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 가는 무는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다. 26일 제주자치도가 집계해 발표하는 농축산식품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도내 노지채소 재배면적은 1만 4105ha로 2011년(1만5571ha) 대비 9.4% 감소했다. 10년동안 면적이 최고였던 해는 2011년이고, 최저는 2019년(1만3604ha)이었다. 품목별로는 마늘 재배면적 감소가 눈에 띈다.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 필

수적인 품목이지만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계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2011년 2822ha에서 재배되던 것이 2020년에는 1685ha로 10년 새 41.0% 감소했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남도종으로 고유의 맛과 향이 강해 양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다른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대서종은 맛이 부드러워 생으로 먹기도 부담이 적어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양파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이다. 조생종이 주를 이루는 양파는 2011년 1017ha였던 것이 2020년에는 633ha로 37.8% 줄었다. 무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로, 2011년 4733ha에서 2020년

5056ha로 늘었다. 특히 2018년 5177ha로 5000ha를 넘어선 후 2019년(4923ha)과 작년까지 추이를 보면 5000ha가 거의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주산지인 성산읍 등 제주 동부에서 대정읍 등 서부지역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당근은 해마다 증감폭이 큰 편인데 최근 10년동안 재배면적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694ha), 최저는 2019년(1067ha)으로 집계됐다. 양배추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1900ha 이상에서 재배되다 2019년(1721ha)과 2020년(1753ha)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데 마늘은 기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노동집약도가 높은 품목으로 꼽히면서 면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월동무는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워 농가 선호도가 높아 최근 몇년 연속 과잉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제주(9월 27일~10월 3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
회사명	대표	창립일
비에듀컬처	장빈	2006년 9월 27일
벽강종합건설(주)	이시복	1994년 9월 28일
대원종합건설(주)	김택주	1994년 10월 1일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23)

“교육·문화·경제교류사업에 앞장”

▶비에듀컬처=27일 개원 15주년을 맞는 비에듀컬처(대표 장빈·사진)는 도내 최초로 제주CS서비스교육원을 설립해 교육과 문화 관광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관공서 직원 친절 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공직자의 친절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클리닉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빈 대표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13-1070.



“책임 시공으로 품질·내실 경영 최선”

▶벽강종합건설(주)=28일 창립 27주년을 맞는 벽강종합건설(주)(대표 이시복·사진)는 일반 건설업체로도 2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환경순환센터 조성공사와 조건 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성실 시공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시복 대표는 “앞으로도 철저한 책임 시공으로 품질·내실 경영에 충실, 도내 건설·환경 문화를 견인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744-8000.



“축적된 기술력으로 성실 시공 주력”

▶대원종합건설(주)=다음달 1일 창립 27주년을 맞는 대원종합건설(주)(대표이사 김택주·사진)는 각종 토건공사를 비롯해 종합문화재수리업 등의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성실시공에 주력,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서귀포 남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영락리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을 수주해 시공 중에 있다. 김택주 대표이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안전시공을 최우선으로 건설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712-0003. 이태윤기자



참조기 어장 형성... 위판량 26% 증가

제주 근해(추자도~마라도)에서 소흑산도 해역까지 참조기 어장이 형성돼 유자망 어선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참조기 금어기가 끝난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유자망 어선 조업 내 유자망어선 110척이 평균 4회 조업에 나섰다. 한차례 출항할 때마다 5~8일 조업이 이뤄졌다. 올해 위판량은 1328t, 위판액은 82억8000만원이다. 위판량은 작년 같은 기간(1054t) 대비 26%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작년(86억3100만원)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자당(13kg·130마리) 위판 단가는 15만~1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9만~27만원) 대비 21~41% 하락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당첨번호	5. 7. 13. 20. 21. 44
2등 보너스숫자	33
1등	6개 숫자 일치
2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등	5개 숫자 일치
4등	4개 숫자 일치
5등	3개 숫자 일치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농지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무늬) 1, 4년생	·궁천 변이(오라베루)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립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지업등록번호 제 18-2003-20-08

010-2699-2355

📶 제주시정소식

□ 2021년 제주독서대전 ‘책 한디 어울림’ 개최
○ 기 간: 2021. 10. 1.(금) ~ 10. 3.(일)
○ 주 제: 책 한디 어울림
○ 장 소: 우당도서관 일원 등 제주도 전역
○ 운영방법: 온라인 및 제한적 대면 운영
○ 운영내용: 책을 주제로 한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 (북콘서트, 포럼, 전시 등)
○ 참여방법: 책산, 제주 홈페이지 (http://woodang.jeju.go.kr/) 참고
○ 문 의: 제주도 우당도서관 ☎728-1503

□ 2021년 제주 소재 창작연극 ‘불꽃여인 강령극’ 공연 알림
○ 일 시: 2021. 10. 9.(토) 19:30
○ 공연명: 불꽃여인 강령극
- 제주 여성 항일운동가 강령국의 삶을 그려낸 창작극
○ 장 소: 제주문화회관 대극장
○ 입 장 료: 무료
* 제주도 연합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 예정
○ 예약 및 문의: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55-0904

□ 탐라도서관, ‘제주독립출판물 전시회’ 개최
○ 기 간: 2021. 9. 30.(목)까지
○ 주 제: 제주와 관련된 독립출판물(100권)
- 제주 거주 작가의 작품 또는 제주를 주제로 한 독립출판물(54권)
- ‘길 위의 인문학’ 참가 수감생 작품(46권)
○ 장 소: 탐라도서관 1층 로비
○ 문 의: 제주도 탐라도서관 ☎728-8373

□ 2022 제주들불축제 콘텐츠 전국 공모
○ 공모기간: 2021. 9. 13.(월) ~ 10. 15.(금) 18:00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 공모내용: 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
가. 주제: 들불축제에 대한 특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주제
- 코로나 극복·위드 코로나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 전달
-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 빌기’와 관련된 주제
나. 프로그램: 들불축제에 걸맞은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 들불축제 대표적 상징인 ‘목축문화’와 ‘불’과 관련된 콘텐츠
- 장소별(주무대, 마상마에공연장, 광장, 오름앞 별관 등) 프로그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 세부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또는 제주들불축제 홈페이지(www.jeju.go.kr/buriburi/main.do) 참조
○ 접수방법: 공모 제안서 제출
- 방문·우편: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담당자 양
- 이메일: idkcs1984@korea.kr
○ 시상내역

구분	등급	선정작 수	상금
주제	최우수	1	50만 원
	우수	2	각 20만 원
프로그램	최우수	1	50만 원
	우수	2	각 30만 원
	장려	5	각 10만 원

○ 발 표: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당선자 개별 통지
○ 문 의: 제주도 관광진흥과 ☎728-2751-3